

더 커진 서초동 촛불집회...“검찰개혁 끝까지 간다”

세번째 촛불문화제... 1.1km 8개 차선·1.2km 10개 차선 폭재위
광주·전남 1000여명 버스 상경... 촛불집회 부산 등 전국 확산

광주지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관련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5일 광주에서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또 광주·전남권 시민 1000여명도 시민단체의 주도로 5일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촛불집회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1일과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네 방향에 각각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km 구간 10개 차선을 차지하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적폐검찰 아웃’ 등 구호를 외쳤다.

애초 경찰은 이날 집회를 위해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법원·검찰청 사거리까지 남북으로는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전 차로를 통제했으나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아 통제 구간을 동쪽으로 약 500m가량, 남쪽으로 400m가량 확대했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 씨는 “지난주에는 200만명, 오늘은 300만 명이 모였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과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작가 이외수씨도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인데 정치 검찰과 기레기 언론, 부패 정치가들은 인간을 널리 해롭게 한다”며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 단체가 집회 때 주로 사용해 온 태극기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와 태극기 카드를 흔들며 파도타기를 했다.

경찰은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 부근 누에다리까지 인도와 반포대로 사이에도 경찰통제선을 설치해 서초역을 이용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상반된 성격의 두 집회가 사실상 한 지역에서 열린 데다 각 집회 참가자들 모두 서초역(지하철 2호선)과 고속터미널역(3호선)을 함께 이용하다 보니 양쪽 간에 승강기와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위해 반포대로 서쪽 성모병원 교차로~서초역 사거리~서초3동 사거리 약 2.2km 구간 8개 차로와 서초대로 서리풀터널 앞 사거리~서초동 유원아파트 앞 약 1.4km 구간 10개 차로를 전면 통제했다. 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반포대로 누에다리도 통제했다.

한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6시 부산시민대회에서 ‘제2차 검찰 적폐 청산과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제3차 조국 파면 부산 촛불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검 인근 도로에서 가칭 검찰개혁·적폐 청산을 위한 광주시민행동 주최로 '광주시민 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다./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 인근 도로에서 시민 1000여명 검찰·언론개혁 촛불집회

서울에서 검찰·언론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5일 광주에서도 촛불 집회가 진행됐다.

가칭 검찰개혁·적폐 청산을 위한 광주시민행동은 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인근 도로에서 '광주시민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 이뤄내자', '언론적폐 청산' 등 손팻말을 들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기조 발언과 자유발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의 노래와 울동 공연도 곁들여졌다. 집회가 끝나자 일부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광주지검 정문에 붙이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북미 실무협상 결렬... 비핵화-제재해제 의견차만 확인

北 “美에 연말까지 속고 권고”
美 “2주내 협상재개 용의 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왔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일단 북미 양측은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를 상응조

치로 제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했다.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선 7개월 간의 공백을 딛고 협상이 재개됐음에도 협상 상황은 ‘하노이 회담’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노이 회담 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를 ‘카드’로 내놓았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아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미국이 여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았더라도 북한은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미국도 협상 조기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비핵화 대화 완전히 멈춰선 것 아니다”

11월 김정은 방문은 “노 코멘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여부 등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실무협상 결렬보다는 협상 자체에 대해 ‘북미대화 재개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이후에도 동력을 살려가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화동력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멈춰선 것이 아니며, 비핵화 방법론에서 인식 차를

확인했을 뿐 다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인해 다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작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주영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 추진에 변화가 있으리라 보나’라는 물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